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4년 6월 두 번째 29권 11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한미합동도하훈련 실시

카투사신문 온라인 서비스

3면 군관련 소식

레이건 전 미 대통령 서거

한바디

4, 5면 부대 탐방

유엔사경비대대 본부중대



6면 기획 기사

한국전쟁: 민족사의 비극

7면 참전용사 헌시

6월의 노래: 진영학도의용군

8면 안녕하세요

이보영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8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육군 주임원사 용산 기지 방문

문운규 대한민국 육군 주임원사가 지난 18일 육군직속부대 부사관 활동 현장지도를 목적으로 한국군지원단본부를 방문했다. 이날 여러 참모들의 환영을 받은 문 주임원사는 단장실로 안내되어 한국군 지원단장 김덕곤 대령과 환담을 나누었고, 이어 한미 연합사령부 내에 있는 주한미군 주임원사실로 이동하여 트로이 웰치 주한미군 주임원사와 대화를 가졌다. 문 주임원사는 대화 중 웰치 주임원사에게 "미군측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카투사들의 생활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다. 그러한 사실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2003년 1월 이후 개선된 보급물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고, 이에 대해 웰치 주임원사는 "우리 육군에서 카투사들은 핵심 인력이며 뛰어난

2면에 이어집니다



카투사 신문 열태성

문운규 육군 주임원사와 트로이 웰치 주한미군 주임원사가 카투사 제도와 한미 부사령관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카투사 신문 열태성

서형석 목사가 용산지역대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모습

종교의 벽을 넘어

용산지역대 카투사들의 종교 안보 정론

지난 16일 용산 사우스포스트 교회에서는 용산지역대 카투사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안보 특별 강연이 있었다. 정훈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강연은 한국전쟁 세대가 아닌 카투사들에게 당시 상황을 알리고 애국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취지 하에 기획되었다.

"비록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열리는 강연이지만, 특정 종교를 떠나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을 생각하며 함께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이벽역 목사가 준비찬양을 위해 강연대로 올라왔고, '주의 평화', '나를 지으신 주님' 등의 찬송가를 기타 연주와 함께 카투사들과 합창하였다. 이어서 용산지역대장 강성룡 중령과 주한미군 군중참모 샘 분

대령의 인사말이 있었고 미2사단 지역대 한국군 군중참모부 군목 이현식 대위의 기도가 이어졌다.

이 날의 강연을 위해 부대를 찾은 명지대학교 교목 서형석 목사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강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였다. 설교는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서 목사는 재치 있는 입담과 흥미 있는 강연 내용으로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재미보다는 감동', '성취보다는 보람'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개개인의 종교를 초월하여 서로 조화롭게 사는 법을 제시하였다. 기독교의 교리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수학적 공식'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친 서 목사는 큰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고, 이어진 찬송가와 함께 약 2시간에 걸친 강연은 막을 내렸다.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니 색다른 느낌이었다"는 8군 본사 공병참모부 작전과 소속의 문인성 상병은 "교회를 떠올리면 항상 딱딱한 생각이 들곤 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며 재밌게 웃고 유익한 교훈도 얻어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하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며 종교 강연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카투사 신문 정승모

비 내리는 하루 제 6호 태풍 '디앤무'는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열도를 지나며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비를 뿌렸다. 기상청은 25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전망이고, 7월 중순까지의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우산을 쓰고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는 서울 시민들.

한미 합동 도하 훈련 실시

지난 9일 한강에서는 2사단 50공병 중대와 한국군육군본부 휘하 1901도하 공병단(이하 도하단)의 한강 도하훈련이 있었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부교 건설 훈련으로서, 금년에는 항공여단 제2항공대대에서 치누크 헬기 수송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중대부관 니콜 칠슨 중위가 훈련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육군 도하단은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50공병중대와 탁월한 합동작전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미 양국군 도하부대가 함께 훈련함으로써, 양국 장병들이 장비의 차이와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합동 작전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육군 도하단 송원식 중령(진)은,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이번 합동 훈련은 장비 운용법의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의 운용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양국군이 서로 병사를 교환하여 선박과 인원이 혼합운용되었다.

부교 부설 선박 한 척의 운용 책임을 맡았던 앨런 매시도어 병장은 "대한민국 육군과의 합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록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양국군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투사들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작전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상호간 장비의 차이점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 송중령(진)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군이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며 훈련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

2사단 공보실 상병 최연우



2사단 공보실 류후선

여러 매체들이 훈련을 취재하는 가운데 한국군과 미군이 합심하여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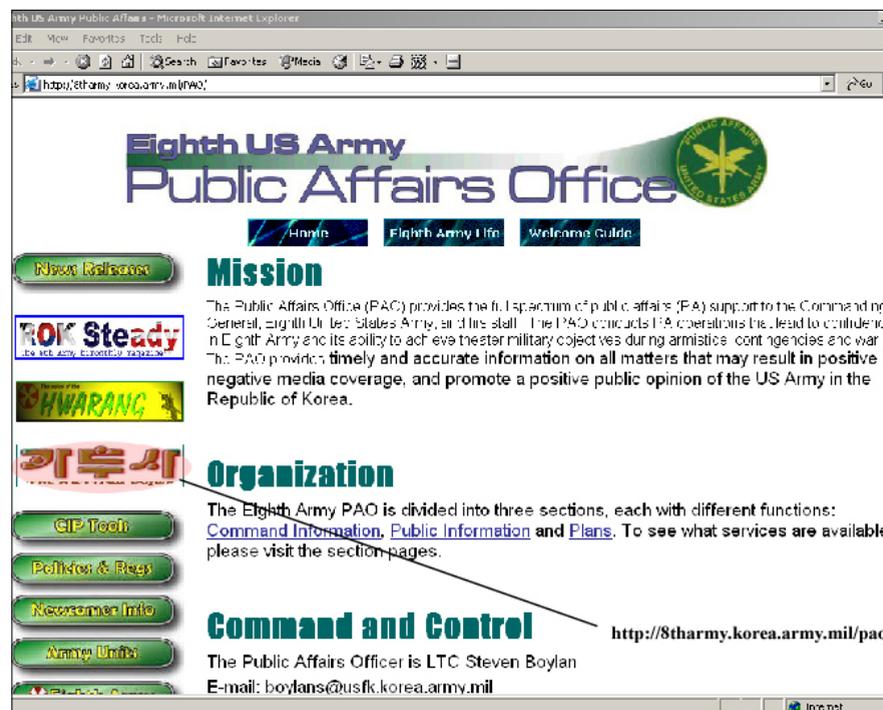
▲지난 호(6월 첫 번째 29권 10호) 3면 '카투사 한마디' 관련, 사진의 주인공 이름을 (왼쪽부터) 상병 이승현, 일병 정재훈, 이병 성현주, 병장 광재훈으로, 4명의 사진설명 관련, '17항공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를 '17항공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호크 헬기'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카투사 신문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 4,000부가 발행되어 카투사가 있는 전국 각지의 캠프로 배부됩니다. 그러나 작전 등의 사정으로 신문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문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카투사 신문 온라인 주소는 <http://8tharmy.korea.army.mil/PAO/katusa.htm> 입니다. 이를 통해 카투사 신문 지난 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 8군 공식 웹사이트인 <http://8tharmy.korea.army.mil> 로 접속하시면, 카투사 신문 최신판 외에 2사단의 인디언헤드, 19전구지원사령부의 Team 19!, 1통신여단의 Voice of the ROK, 8헌병여단의 Watchdog 등 여러 발행물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보이는 신문 / 잡지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 형태로 된 각 해당 신문/잡지의 최근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투사 신문 제작진 일동

카투사 신문 On-Line 서비스



카투사 선발 제도 개선

2004년 8월에 모집하는 카투사의 선발 자격기준과 선발방법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주위에 카투사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참고하길 바랍니다.

개선내용

- ▶ 선발자의 「입영희망시기」 반영으로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현행의 일괄 선발하여 생년월일 순으로 입영일자를 직권 결정하던 것을
 - 카투사 지원서 작성시 입영희망일을 접수받아 월별, 점수대별로 선발하여
 - 본인이 원하는 입영희망시기 전원반영
 - ▶ 국외 TOEIC응시자도 카투사 지원가능토록 하여 지원범위 확대
 - 현행 국내 정기 TOEIC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국외 정기 TOEIC응시자도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 국외응시자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
 - ▶ TEPS 성적기준 조정으로 TOEIC 성적기준과 형평성 유지
 - 현행 TEPS 성적기준이 640점 이상으로 TOEIC응시자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었기에
 - TOEIC과 형평에 맞게 점수조정(640점 → 625점)하여 형평성 유지
-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방문하길 바랍니다.
- ▶ 병무청홈페이지 → 육군병모집 → 모집안내 → 카투사 참조

육군 주임원사

1면에 이어서...

자산이다. 그런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카투사 프로그램과 부서관 활동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고, 카투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카투사 제도의 세계적인 유일성이 강조되었다. 이어 내무시설 견학을 위해 캠프 코너에 위치한 41통신대대를 방문한 문 주임원사는 41통신대대 지원대장 김재광 상사의 안내를 받아 체육관과 막사 등 카투사들의 생활공간을 견학하였다. 일정을 마치고 떠나며 그는 카투사들에게 "항상 전문성, 도덕성을 두루 겸비한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

일병 염태성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식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과는 다르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A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8376/4683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채신정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jangsm@usfk.korea.army.mil이다.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프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근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장승모
- 기자
- 상병 김택현
- 일병 염태성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 Gen.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 Col. Steven A. Boylan
- Command Information OIC
- Capt. Kone C. Faulkner
- Editor
- Sgt. Jang, Seung-mo
- Staff Writers
- Cpl. Kim, Taek-hyun
- Pfc. Yum, Tae-sung
- Special Assistant
- Mr. In, Pu-hyun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A,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8376/4683.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jangs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6460

E-mail: jangsm@usfk.korea.army.mil

미국의 영웅, 영원히 잠들다

현역 재임기간 큰 획을 그은 레이건 전 미 대통령 중 세계평화와 냉전종식에 힘써..

로널드 레이건 전(前)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자택에서 93세의 일기로 서거하였다. 1911년 2월 6일 일리노이 주에서 태어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음주벽과 지병에 시달린 어머니 등 순탄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항상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실에 굴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생각은 그가 장차 성공하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1937년부터 영화배우로서 약 50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1962년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였다. 레

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두 번의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 뛰어난 연설 능력과 지도력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중의 한명으로 남아있다. 1981년 저격을 당해 암살의 위기를 맞았지만 총알이 빗나가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직을 수행하기도 했던 그는 퇴임한 후 1994년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 후 10년이 넘게 투병생활을 하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언젠가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핵



"Whatever else history may say about me when I'm gone, I hope it will record that I appealed to your best hopes, not your worst fears; to your confidence rather than your doubts, My dream is that you will travel the oad ahead with liberty's lamp guiding your steps and opportunity's arm steadying your way."

Ronald W. Reagan(1911 ~ 2004)



카투사 신문 열대성

레이건 전 미 대통령 추모예배 중 묵념을 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 내외(왼쪽)와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내외

무기의 개발을 조장하는 어떠한 종류의 정책도 반대하였다. 또한 당시의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협정을 맺는 등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와 냉전 종식으로 미국과 자유세계의 평화를 되찾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해는 11일 워싱턴 대성당에서

의 국장을 마친 후 캘리포니아 주 시미벨리에 있는 레이건 박물관 내의 묘역에 안장되었다.

한편 6월 11일 용산 사우스포스트의 교회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예배가 열렸다. 미 8군 군악대 소속 필립 힐리 하사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된 예배는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추모식을 시작하며 2지역대 주임목사 토마스 드레이크 중령이 기도문 낭독을 하였고 참석한 모든 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Faith of Our Fathers'를 합창하였다. 이어서 KORO 주임목사인 로렌스 배리 대령의 성서 낭독과 주한미군 군중참모 샘 분 대령의 기도가 있는 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리온 라포트 대장의 애도의 말이 이어졌다. 그 후 유엔사령부 의장대의 예

포 발사와 미 8군 군악대 크리스토퍼 하우튼 중사의 영결 나팔 연주를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는 라포트 대장을 비롯하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장수 대장, 미8군 사령관 찰스 캠벨 중장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날의 행사에서 음향 관리를 맡은 사우스포스트 교회의 오지훈 이병은 "오늘 행사를 위해 사우스포스트 교회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에게 처음으로 맡는 큰 행사였지만, 매우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이 추모 행사에는 부대 내의 인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한국의 기자들의 취재열기도 뜨거워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

일병 열대성

카투사 한마디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 병장 김승수

부대의 임무 전환이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JSA 동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주로 본부중대원들과 함께 운동이나 바베큐 파티를 통해 더 더욱 친해지고 싶습니다. 부대 임무 전환 후 부대원들은 모두 흩어지겠지만 JSA에서 근무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 병장 박진범

JSA로 전입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병때 힘들었던 기억들, 처음 후임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 상병으로 진급했던 날...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몇 달 후면 제게 2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추억을 남겨준 JSA는 임무전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후임병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부대 이전까지 지금 우리 JSA 본부중대의 늘름한 모습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 상병 허규영

JSA로 전입을 온지 이제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항상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서 견학 경호부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JSA를 보다 잘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대생활을 하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러한 만큼 저희 부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크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JSA에서 다시 한번 맞는 여름, 이 마지막 여름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JSA의 일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 일병 최낙현

이번 여름은 저희가 JSA에서 보내게 되는 마지막 여름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근무를 서는 순간까지 가슴속 깊이 JSA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JSA에서 생활했던 모든 기억들이 군생활에서 뿐만 아닌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SpC. Daniel Love/ Eighth Army PAO

유엔사 경비대 개개 본부중대

용산에서 북쪽으로 국도를 따라 계속하여 차를 몰다 보면 북한과 한국의 경계선 그곳에 위치해 있는 한 부대에 다다르게 된다. '최전방에서 (IN FRONT OF THEM ALL)'라는 표어로 우리나라의 최전방에서 365일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이 부대, 바로 유엔사 경비대대이다. 유엔사 경비대대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나

판문점으로 더 잘 알려진 부대이며 한미 연합 합동대대로서 한미 양국의 지휘체계 하에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표상이자 모든 군인의 모범이 되는 이번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의 부대탐방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앞으로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업무가 대부분 한국군에 이양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2년 5월, 유

엔사령부는 휴전조약 이행을 위해 휴전조약 수행에 관련된 기관과 군사정전위원회에 필요한 시설과 병창 지원을 위해 5명의 장교와 10명의 사병으로 이루어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지원단(가칭)을 설립했다. 1979년 6월 11일 유엔사 지원단-공동경비구역(UNCSG-JSA)으로 재창설된 유엔사 경비대대는 1980년, 경비중대와 본부 및 지원의 두 개 중대로 형태를 갖추게 된다. 1985년에는 유엔사 경비부대-공동경비구역(UNCSF-JSA)으로 개칭이 되었으며 한국군과 미군이 섞여 있던 경비중대는 1992년 4월에 모두 한국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 이르러 유엔사 경비부대-공동경비구역은 현재의 유엔사 경비대대-공동경비구역(UNCSB-JSA)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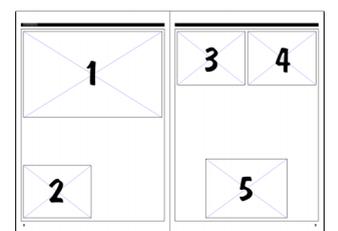
유엔사 경비대대의 한국군, 미군과 카투사는 예외 없이 외모와 학력은 기본이고, 가족 사항 등 신원 조회를 모두 통과하여야만 부대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대대원들은 큰 자부심을 가진다. 특히 이 곳의 카투사들은 카투사 교육대를 직접 찾아 자신의 후임병들을 직접 선발하기 때문에, '최고의 카투사'라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

또한 유엔사 경비대대 내의 경비중대 한국군들은 모두 카투사로 포함되며 한

국군이 대대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어서 대다수의 카투사들이 근무하는 미군 부대와는 달리 한국군의 분위



SpC. Daniel Love/ Eighth Army PAO



1. 유엔사 경비대대 경비중대원들이 판문점을 방문한 북측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다.
2.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원들이 PT의 일환으로 철봉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다.
3. 약실 검사를 하고 있는 헌병소대 이연학 일병
4. 유엔사 경비대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부대소개 및 비무장지대 소개를 하고 있는 견학경호부 허규영 상병
5. 본부중대 수색소대들이 근접 건물 전투 훈련 중 건물 탐색을 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

기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경비중대원들은 한국군임에도 불구하고 카투사들과 같이 우수보병기장(Expert Infantry Badge)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우수보병기장 교육과정을 받는 동안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관의 몸동작을 노트에 그려 밤에 숙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군들에게 한국군의 끈기를 널리 알리고 있다.

관문점을 올라가 만난 경비중대 2소대 1분대장 석명호 병장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는데 있어 많은 보람을 느끼며, 선발되어 오게 된 만큼 부대원들 모두가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소감과 마음가짐을 밝혔다.

유엔사 경비대대는 한국군으로 이루어진 경비중대와 카투사와 미군으로 이루어진 본부중대로 나뉜다. 경비중대는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있고 특별한 임무 때문에 365일 쉬지 않고 관측소 근무 및 수색 작전을 시행한다. 본부중대는 이러한 경비중대를 지원해주는 일을 한다. 경비중대는 4개의 소대와 본부 소대로 나뉘며 본부중대는 인사과, 정보과, 작전과, 군수과 등과 함께 민정소대, 헌병소대, 수색소대, 상황실, 견학경호부와 의무대로 나뉜다. 그 중 헌병소대는 일반적으로 위병소에 근무하는 헌병위병대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장교들의 운전과 경호를 하는 헌병경호대로 나뉜다. 민정소대는 본부중대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최북단 마을인 대성동 마을의 치안과 안보 등을 담당한다. 상황실은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 및 파악한다. 또한 경비중대와 가장 비슷하면서 밀접한 업무를 하는 수색소대는 작전 및 훈련 중 한국군과 미군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군복을 착용하는 다른 소대들과는 달리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견학경호부 소속 장병들은 관문점으로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유엔사 경비대대를 안내해주며, 관광을 하는 동안 경호업무 역시 담당한다.

"관광안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관문점을 방문한 여고생들 앞에서 발음이 꼬인 적이 있었다"는 견학경호부 허규영 상병은 "처음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두려웠는데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법과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JSA에서 훌륭한 병사들과 함께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군생활을 요약하였다.

항시 있는 실탄사격훈련은 물론이고, 긴급 상황 발생시 사상자가 가장 빨리 발생하는 관문점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엔사 경비대대 의무대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일병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장병들은 치료와 처방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독사에 물린 병사를 응급처치한 후 헬기에 태워 용산기지의 121 병원으로 후송한 적도 있다"며 경험담을 말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원들은 국방의 의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씩 본부중대의 카투사와 미군들은 '평화원'이라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주에 한번씩은 한국군 1사단과 대성동 초등학교를 부대의 카투사들이 직접 방문,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는 체력을 특히 중요시하여 중대 PT 평균 점수가 270점을 상회한다. 본부중대는 PT를 주로 섹션별로 하며 군장구보를 자주한다고 한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중대 PT가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승합차를 빌려 4마일 달리기, 고무보트 들고 달리기와 철봉을 들고 2인 1조로 산 올라가기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체력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 미군과 카

투사들의 돈독한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운동경기를 함께 하며 우정을 다지는데, 심지어는 미군들이 먼저 축구시합을 요청할 정도이다. 또한 미군과 카투사가 함께 여행을 가는 일도 많은데, 지금까지 롯데월드, 제주도, 동강, 설악산 등 많은 곳을 여행하였다고 한다.

본부중대 카투사들은 부대의 특성상 주말 외박이 다른 카투사들에 비해 적으나, 이를 부대원들과 축구나 농구를 하며 전우애와 친목을 더욱 다지는 기회로 삼는다. 또한 선임병과 후임병 간에 말로 하기 힘들었던 속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한다고 한다.

끝으로 유엔사 경비대대 본부중대의 부중대장이자 지원대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 중위는 카투사들에게 군생활 중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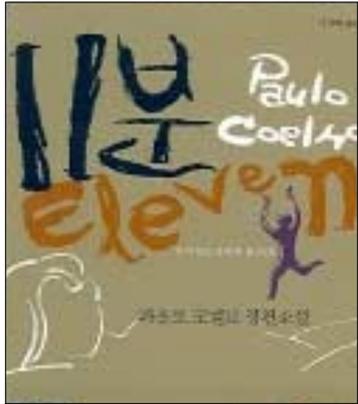
"카투사는 다른 한국군들과 비교하였을 때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어공부, 전공공부, 독서 및 운동 등 자기 발전을 위해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일수도 있지만, 청춘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들에게 새겨지는 한국의 이미지는 같이 근무하는 카투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많으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한국의 위상이 카투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카투사들이 항상 한국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사태로 캠프 보니 파스는 '태풍의 눈'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곳에서 국방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유엔사 경비대대원들을 보며 취재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상병 김택현



제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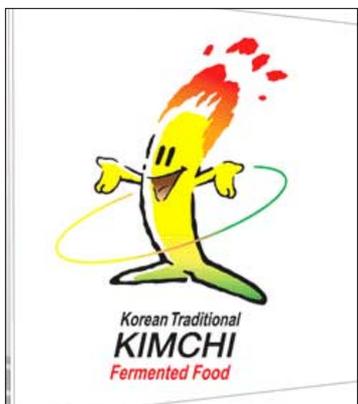


BESTSELLER

11분

파울로 코엘료 / 문학동네

사랑은 오직 고통을 줄 뿐이라 믿는 브라질 처녀 마리아는 일자리와 모험을 찾아 제네바로 떠나고,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젊은 화가를 만난다. 실제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이 이야기는 강하고 거침이 없다.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는 시적 에스프리와 아름다운 이미지들로 가득찬 이 소설에서, 사랑의 영성에 관한 미묘하고도 흡인력있는 탐구를 보여준다.



WEBSITE

한국의 김치

<http://www.kimchi.or.kr>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제공하는 김치 홍보 사이트로, 김치의 역사, 어원, 효능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다양한 김치의 종류, 직접 김치를 만드는 법과 함께 김치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리도 소개되어 있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주변의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도 추천해줄 수 있는 사이트이다.

■ 기획 기사

한국전쟁: 민족사의 비극

- 한국전쟁의 과정과 그것이 주는 교훈

지난 6월 25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겨 준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으며,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산가족의 숫자만도 100만 명을 넘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북한의 관계는 평화 분위기로 접어들어 통일의 시기가 가까워 온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다시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어버린 한국전쟁의 발발 과정,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 분단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이후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북위 38도 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나뉘게 된 것이다. 이후 소련과 미국의 남북한에 대한 3년간의 신탁 통치로 분단의 상황은 더욱 굳어지고 급기야 1948년 8월 15일과 그 해 9월 9일, 남한과 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남북한의 독립 정부가 수립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50년 6월, 남북한의 관계는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보였으며 국민들은 통일 정부 수립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6월 7일 북한이 방송을 통해 광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이어, 19일에는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북한의 전쟁 도발 의지를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1949년 6월 남한에서의 미군 완전 철수와 1950년 1월 12일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미국의 애치슨 국무 장관의 이른바 '애치슨 선언'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여지를 제공했다.



1950년 9월 28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한국해병 제2대대 장병들



제공사진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다.

결국 북한은 6월 25일 새벽,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단행하게 된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개시한 25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국군의 지휘관 상당수가 외출 중이었고, 우리 군은 충분한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전세는 국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6월 28일, 전쟁이 일어난 지 4일 만에 서울은 결국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게 된다. 이후 1950년 7월 7일, 영국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미 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한 유엔군이 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계속 불리해져, 대전에 이어 전라도 지방 역시 북한군에 점령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부산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전체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할 위기에서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사 항전을 벌였다.

이러한 절대적 열세가 반전된 것은 9월 15일의 인천 상륙 작전 이후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 아래 9월 15일 도박과도 같은 상륙 작전을 감행하게 된다.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상륙은 성공했고 북한군의 허를 찌른 유엔군은 인천을 탈환할 수 있었다. 이후 유엔군은 맹렬한 기세로 진격하여 서울에 이르렀고, 10여 일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다.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진격, 38선을 돌파하며 11월에는 두만강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은 북에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알렸으며,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국토 통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국민이 종전의 기쁨에 젖어있을 때 이후의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중공군의 개입이 시작된다. 11월 1일 본격적으로 참전한 중공군은 50여 만 명의 병력으로 인해 전술을 펼치며 유엔군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에 한반도를 거의 점령했던 유엔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북한에 내어주게 된다.

그러나 아군은 이윽고 전열을 재정비하여 51년 3월 15일 서울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후 국군과 북한군은 38선 부근에서 격렬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양국이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이고 있던 51년 여름, 영국, 네덜란드, 터키 등 16개 유엔 회원국이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전쟁이 국제전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유엔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38선 부근에서의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윽고 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결사적인 전투가 이어지던 53년 7월 27일,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승인으로 마침내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다. 3년 여간 계속되던 민족사의 비극적 전쟁이 남북통일의 여망을 남긴 채 중단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지금,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준다. 국방을 소홀히 하여 나라를 잃을 뻔 했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전쟁을 치렀으며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는 특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 우리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쟁을 직접 겪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의 경우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뼈아픈 과거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임무에 전념을 다하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분단의 역사는 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미8군 공보실 이병 배정현

■ 참전용사 獻詩

6월의 노래 : 진영학도의용군

삼가 영령께 헌정드립니다.

6월의 노래

(부제: 진영학도의용군)

최의연

1950. 6. 25 미명
 줄지에 38선은 무너지고
 국군은 유란으로 적 탱크를 깨부수다
 통한의 피눈물 고난 찬 남행 길녘
 슬한 동족상잔의 기록들이 얼룩졌다

오오 낙동강
 태고 적부터 유구히 흘렀는가
 그 남녘 진영땅
 어머니의 포근한 품속
 탐스럽게 빠알간 단감
 집들마다 주렁주렁 영글다

번득이는 눈빛 영특한 모습으로
 이름 모를 대학생들 중학생들을
 학도 의용군으로 이끌다
 무명지 깨물어 태극기 휘날리며

젊음을 불사르다
 핏빛으로 물든 물결에
 이름 모를 남들의 충혼이 일렁이다

그 이름 진영학도의용군

오오 세계 평화의 사도
 워커장군 이름하여 번개 / 소방차부대
 마산땅
 조국 아닌 만리이역 용감무쌍했던

파란 눈의 이름 모를 전우들이여
 어이타가 고귀한 붉은 피 흘부렸는가
 어깨를 맞대듯이 거친 산하 누비며
 북으로 쫓기는 적군 사정없이 무찔렀던가

어느 산하 이름 모를 들꽃 되어 잠들었는가
 서투른 정담을 나누며 서로를
 무척이도 아꼈던 고마운 전우들이기에

아쉬운 작별 청주땅

만나면 언젠가는 이별인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짧은 만남에
 말보다 몸짓 눈빛으로 서로를 달래다

오오 가신 남들이시여
 이렇게도 애잔한 것은
 고이 잠드신 어느 산하
 회부연 동녘 눈부신 태양 막 떠오르는가

백설 흘날리는 인제땅 현리
 칩칩산중 때지어 달려드는 중공군
 보기 좋게 무찔렀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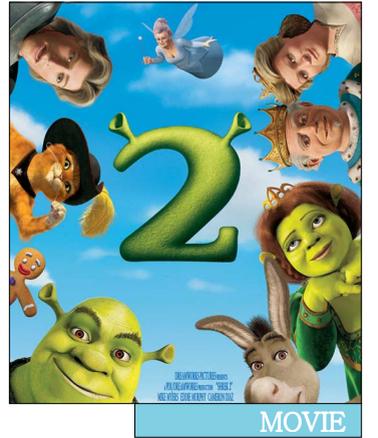
일찍이 어느 전사에도 없었기에
 남들 이름 새긴 비록 한 그루도 없었기에
 이렇게도 애잔한 것은

그 이름 진영학도의용군

최의연씨는....

1932년 8월 24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하여 광복 후 공산당을 피해 월남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단행하자 7월 25일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에서 서울에서 피난 온 대학생 100여 명이 '진영학도의용대'를 조직하는데, 최의연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의용대에 자진입대한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전투가 지속될수록 사상자가 급속히 늘어나 신병보충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구나 인천상륙작전의 강행을 계획함으로써 병력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고, 이에 한국군을 미군부대에 배속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시기에 진영학도의용대가 마산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 제25사단에 배속되는데, 이는 미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전한 최초의 학도의용군이 되고, 또한 카투사 제도의 효시가 된다. 카투사 최초로 참전한 최의연씨는 1950년 9월 11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수많은 전투를 치루다 이듬해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북한군을 증원한 중공군의 선발대와 맞닥뜨려 싸우다 부상을 입어 명예제대하였다. 최의연씨는 현재 6.25참전 진영학도의용군회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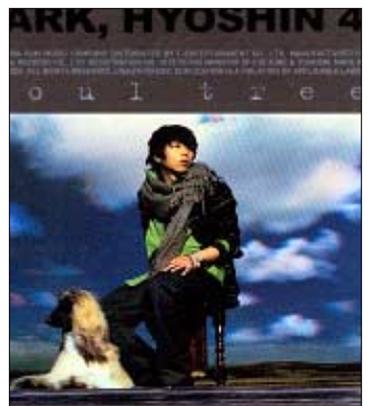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정승모



슈렉 2

감독: 켈리 에스베리
 주연(성우): 카메론 디아즈

꿈결 같은 허니문에서 돌아온 슈렉과 피오나. 이 행복한 녹색 커플은 피오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는다. 먼 길 끝에 도착한 왕국에는 모든 시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괴물이 되어버린 피오나 공주와 슈렉의 모습을 보고 모두 기절초풍한다.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TOP CHARTS

그곳에 서서

박효신

2. 180° / MC몽
3. 불꽃 / 코요태
4. 대한건아 만세 / NRG
5. 가슴에 지는 태양 / 김범수
6. My little princess / 동방신기
7. 인연 / 이승철과 황제
8. 제주도의 푸른 밤 / 성시경
9. 님은 사람 / Tei
10. 야상곡 / 김윤아
11. 꿈에 / 이수영
12. 옥심쟁이 / 김동률
13. 시간을 찾아서 / 김진표
14. sweetie / Clazziqai



천의 얼굴을 가진 스텝어디스 이보영

이번 '안녕하세요'에서는 박주미와 한가인의 뒤를 이어 현재 방영중인 아시아나 항공 새 CF의 주인공인 이보영을 만나보았다. 아시아나 항공의 전속모델은 스타의 등용문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미모를 겸비해야 함은 물론 12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거쳐야 한다. 순수한 이미지의 탤런트 이보영은 드라마 '백수탈출'과 '애정만세'에서 연기 실력을 인정받아 일요 아침 드라마 '물꽃마을 사람들'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으며 현재 드라마 '장길산'에서 귀례 역으로 출연중이다. 또한 올 가을 개봉 예정인 영화 '우리 형'에서 원빈, 신하균과 함께 출연하여 스크린에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저는 1981년생이고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데뷔하게 된 계기

CF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라마 '백수탈출'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극중의 아나운서 역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근황

지금 촬영하고 있는 드라마 '물꽃마을 사람들'은 다음주에 마지막 촬영을 마치게 되고, 현재 드라마 '장길산'에 출연하고 있어요. 또 영화 '우리 형'의 촬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나 항공의 새 모델이 된 심정

처음에 모델로 선발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전에 하셨던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부담도 되고 어떻게 나올지 기대도 됐었는데 촬영 스태프 분들께서 잘 찍어 주셔서 좋았습니다.

- 드라마 '장길산'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점

사극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정말 재미있어요. 연기를 하면서 현대극보다 에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배우는 것도 많고 재미있습니다.

- 첫 영화 '우리 형'에 대해서

'우리 형'은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극중에서의 형제인 원빈씨와 신하균씨 사이에서 첫 사랑으로 살짝 등장해 두 사람의 갈등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첫 영화여서 그런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극중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역이다 보니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해요.

- 취미나 특기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요리로 유명한 식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하고요.

- 최근 재미있게 본 책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책은 김형경 씨의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두 여자가 나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적인 면도 나오고 몰입이 잘 되는 책이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 본받고 싶거나 좋아하는 연기자

남자 배우는 조지 클루니를 좋아하고 여자 배우 중에서는 위노나 라이더를 좋아해요. 영화 '가위 손'에서의 그 묘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위노나 라이더가 나온 영화는 다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 군인에 대한 추억

저에게는 사촌동생들까지 포함해서 남동생이 모두 네 명이 있는데, 저에게 면회를 오라고 해서 아주 더운 날 대전, 대구 등 여러 곳을 열심히 다닌 기억이 있어요. 면회실에 가서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너는 왜 저런 여자친구도 없어서 누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라며 장난쳤던 기억도 있고요.

- 카투사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힘내세요. 파이팅!

상병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



카투사 신문 김택현